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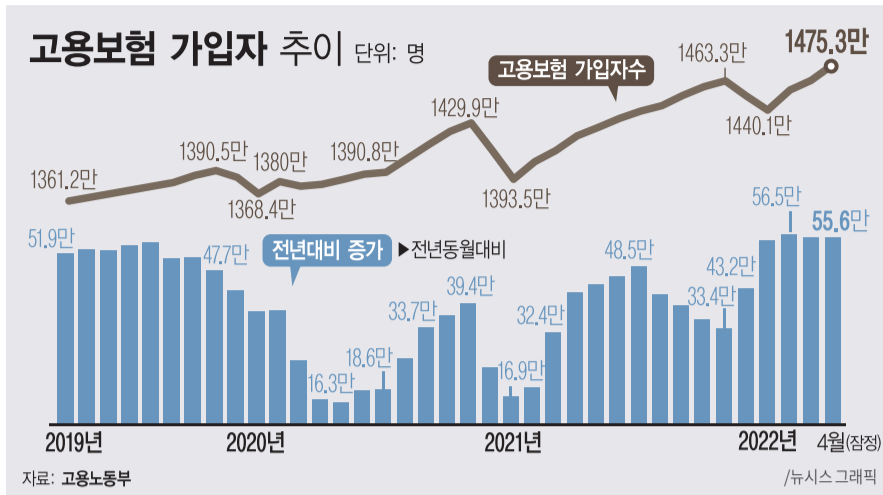
# 제조업 등 대부분 산업 고용 ↑... 실업급여 지급 1兆 밀돌아

일상회복에 노동시장 빠른 회복세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육상운송업·항공업은 여전히 부진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다. 지난 달 1조원대를 넘어섰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도 다시 9700억원으로 내려갔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7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6000명(3.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만 보면 지난 1월 54만8000명에서 2월 56만5000명, 3



월 55만7000명, 4월 55만6000명으로 4달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366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4000명 늘어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통신(1만3300명), 식료품(1만900명), 금속가공(9800명), 자동차(4200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었다.

조선업도 수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은 전년도

다 3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지난달 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자는 1017만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9000명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업이 67만명 증가했다. 소매업도 1년 전보다 2만4600명 증가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5개월 연속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60세 이상(23만8000명)에서 가장 많았고, 50대(16만9000명), 40대(7만명), 29세 이하(5만8000명), 30대

(2만2000명)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육상운송업, 항공업 등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택시가 8700명 감소하는 등 육상운송업은 1년 전보다 6700명 줄었다. 항공업도 900명 감소했다.

고용 회복세에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722억원으로 전년보다 1857억원(16.0%) 줄었다. 지난 3월 1조원대를 기록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0.1%) 감소했다.

김영중 실장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코로나19 위기 회복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산업부, 글로벌 기업 국내 투자유치 나서

여한구 본부장, 써모피셔사 화상회의  
백신 원부자재 제조공장 설립 설득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사에 한국에 투자해 줄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9일 대한상의에서 써모피셔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한국에 설치해달라고 설득했다.

써모피셔사는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전 세계 60여개국에 10만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 6억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투자지역과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날 회의는 여 본부장이 지난달 말 써모피셔 한국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본사 경영진에게 한국투자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써모피셔사 선임부사장인 댄 사인 등 경영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의지를 설명하고 한

국을 최종 투자지로 결정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를 비롯해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외투기업의 입지와 관련해 임대료 혜택과 우수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 등의 지원도 한다.

여 본부장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 등을 통해 지난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싸이티바(52억5000만달러), 싸도리우스(3억달러) 등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핵심 허브로 성장해나가는 한국의 강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써모피셔사가 지난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이어온 것을 강조하며 “백신 원부자재 제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해 한국과의 관계가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오늘부터 청와대 개방 10일부터 청와대가 개방 된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 “예비군 통지서,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국방부, 내일부터 모바일 송달 서비스  
일각선 모바일 시스템 오류 우려도

예비군의 신분증 역할을 해주는 ‘밀리패스’ 앱에 이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도 모바일 송달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에 맞춰 군 당국이 예비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의 안정과 예비군의 민심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올해 예비군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에 맞춰 예비군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기존 상근예비병에 의한 소집통지서 배부나 우편·등기 발송에 비해, 인력 및 행정력 소모

가 줄어든다는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증가와 실제 주소와 달라 벌여질 수 있는 미전달 사고도 줄일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중계자로 2030세대들 익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KT(문자) 등이다. 중계자로부터 송달된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을 위해서는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 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소집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기존 방식인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일각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육군이 예비군을 비롯한 육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밀리패스가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예비군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달 예비군 담당부대의 권유를 받고 밀리패스 앱을 설치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군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이었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5월부터 예비군 등록이 가능하다는 육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밀리패스 앱의 등록을 마쳤지만, 매년 강제탈퇴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복무기간도 1개월이 줄어든 것으로 기록돼, 학군 및 학사장교 출신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육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개선 중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

## 공정위, 가격 담합 건축사무소 2곳 적발

과징금 2700만원 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축사무소 2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8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26일 경기도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렴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활성화)계획 수렴용역’에서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

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으나,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낙찰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는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었는데,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는데,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여원의 금액으로 투찰해 최종 6억20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